



동물의 세계에서 배우는

혁신의 지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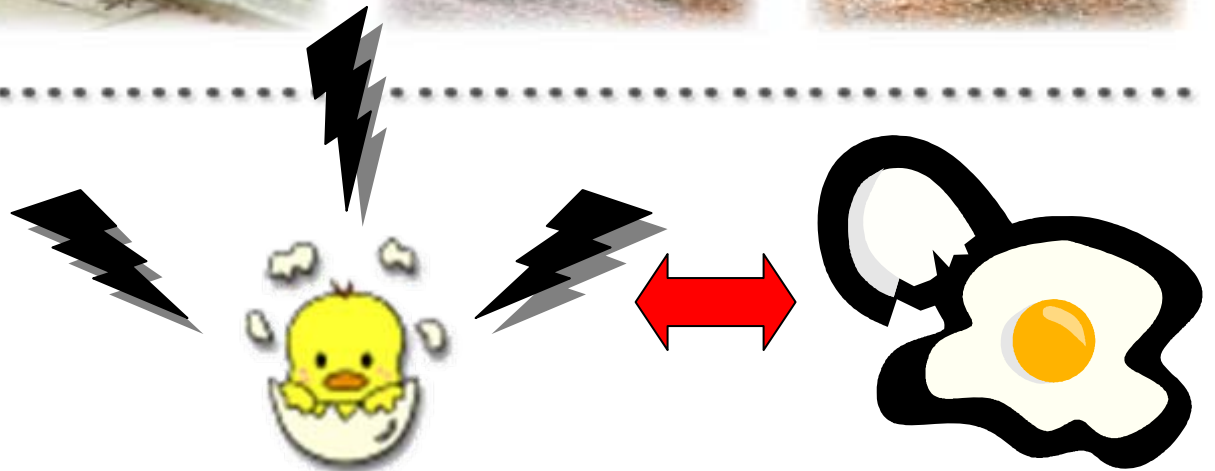
인간은 무엇으로 태어나는게 아니고 무엇으로 되어가는가다.

“ 지구상에 살아남은 것은 『 강한 것』 이 아닌
『 변화에 순응한 것』 들이다 ” ...

【종의기원】 의 저자 다윈

병아리와 후라이의 차이

1.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



- ▶ “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한마리 생명력 있는 병아리가 되고
남이 깨주면 1회용 계란 후라이 ”

[생각하는 글]

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아집과 편견과 고정관념의 껍질에 둘러 쌓여 있다.
스스로 구속하는 비좁은 마음속에서 답답함을 못이겨
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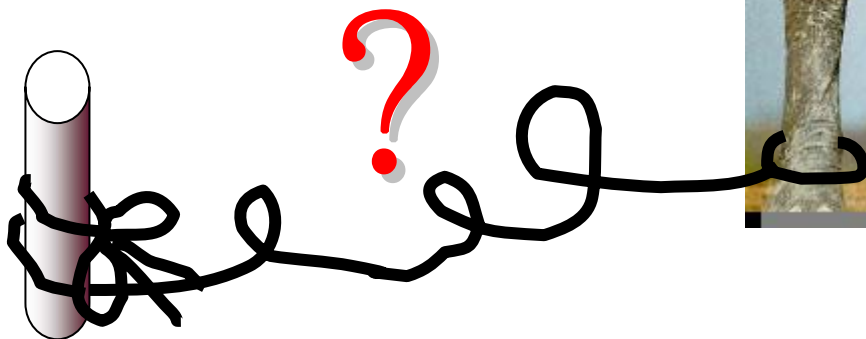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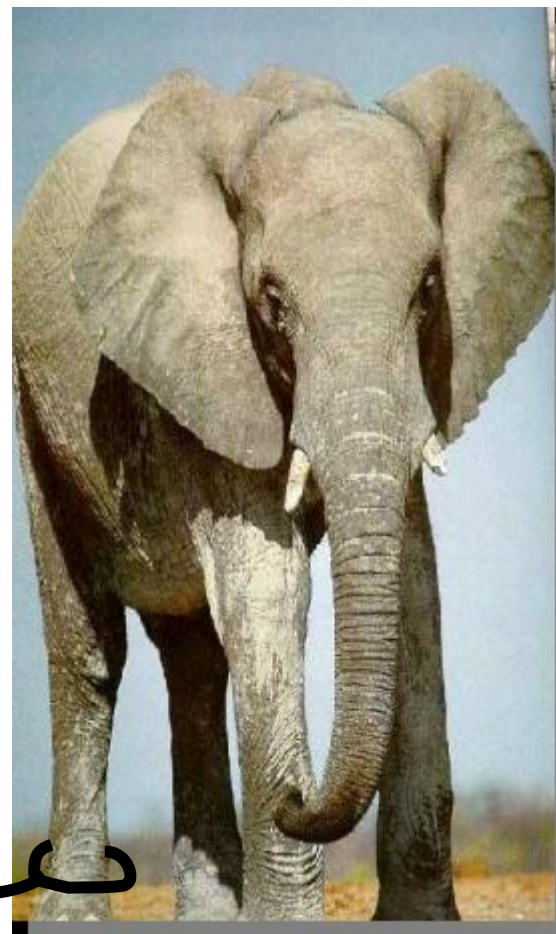
자기혁신은 바로 이껍질을 깨고 나오는데서부터 출발한다.
혁신이란~ 역시 이벽을 깨야만 가능하다.
의식의 벽, 제도의 벽, 관행의 벽, 조직의 벽 등...
우리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벽이있는가?

문제는 나이가 많을수록, 경험이 많을수록, 지위가 높을수록 그벽이 두텁다는 것이다.
그 두꺼운 껍질은 누구도 다른 사람이 깨주기 어렵다.
스스로 깨고 나와야 한다. (죽탁동시)
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부화과정이 바로 [자성반성(自性反省)]이다.
철저한 [자성반성(自性反省)] 없이 자기혁신, 조직혁신은 불가능하다.

[Kosoo.net]의 반성의 힘에서

2. 코끼리 아저씨의 족쇄

▶ 뒷다리에 5cm의 족쇄를 차고 있는
완전히 다 큰 코끼리가 있다. 이 족쇄는
2m길이의 사슬에 연되어 있고 그 사슬
은 땅에 박혀 있는 말뚝에 묶여 있다.
하지만 코끼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
든지 뽑아낼수 있는 말뚝이다.
그런데 코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.



[생각하는 글]

코끼리가 사슬에 묶였던 때는 아주 어렸을 때였고,
그때는 그것을 움직일 만한 힘이 세지 않았었다.
처음에는 말뚝을 뽑아 내려고 여러 번 시도해 봤지만
얼마 안 가서 **그래봐야**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,
그것을 어쩔 수 없는 자기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.

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힘이 세어 졌을 때는...
코끼리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.
물과 이따금의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생활에 만족하며
쉽게 움직일수 있는 말뚝에 묶여 있으면서도 불이날 경우에도 도망가지 못하고
그냥 죽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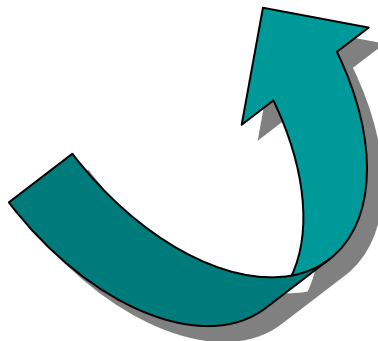
[밥 좀머 <사이코 사이버네틱스 2000>에서]

이글에서 교훈은... 우리는 자신의 고정관념, 타성, 선입견 등에서 벗어나라는 것과
대다수의 사람들이 본인 능력의 10%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.

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그어 버린 코끼리의 족쇄를 우리들도 차고 있지는 않는지...

3.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

- ▶ 한마리의 어린 독수리를 닭과 오리가 있는 우리에 넣고 닭모이를 주며 키웠다. 5년후 독수리는 3m나 되는 날개를 갖고도 날지 않는 닭이 되어 있었다.



[생각하는 글]

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어느 동물학자는 독수리를 다시 날개하고 싶었다.
하지만 닭모이에 만족한 독수리는 날기를 거부했다...

무엇이 문제인가?

독수리의 몸에 독수리 정신 대신 **닭의 정신**이 깃들어 있음을 ...

어느날 그는 아침해가 떠오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 웅장한 자연앞에
독수리를 세운다. 문득 용솟음치는 힘!

독수리는 대지를 발판 삼아 힘차게 비상한다.

[제임스 애그레이 <날고싶지 않은 독수리> 中]

틀안에 머물지 말고 빗장을 풀어 세상을 경험하고 그 경험속에서 부딪치는 좌절을
이겨내라는 교육이 들어 있다. 우리는 너무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
이 독수리와 같지는 않은지.....

4. 벌과 파리의 환경대응 방식



or



▶ 실험)

같은 수의 벌과 파리를 병속에 넣어 바닥을 창쪽으로 해서 뉘어 놓는다...

▷ 결과)

벌 : 밝은 방향에서 출구를 찾다 지쳐 죽을때까지 병밑바닥에서 악전고투한다.

파리: 시험시작 2분도 안되어서 반대쪽 병 주둥이로 나가 버린다.

[생각하는 글]

이 실험에서 벌이 빛을 좋아한다는 것, 그리고 그쪽으로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벌의 **높은 지능이 오히려 우환이** 된 것을 알 수 있다.

벌은 가두어 두면 가장 밝은 쪽에 반드시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너무나도 논리적인 행동만을 취하고 만다. 벌에 있어서 유리병은 여지껏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며 어려운 응용 문제가 되는 것이다.

그런데 어리석은 파리는 유리의 불가사의 한 것 등에는 아랑곳 하지 않으며 빛의 방향 같은 것도 고려에 넣지 않은 채로 무턱대고 날아다닌다.

‘단순한 자에는 행운이 기다리린다’는 격언 그대로

이내 반대쪽에 부딪쳐 출구를 발견하여 자유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다.

☞ 이 실험에서 우리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

<실험>, <지속>, <시행착오>, <리스크>, <임기응변>, <우회>, <혼란>, <고집>, <어림짐작> 등
요소가 총동원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[툼 피터스의<초우량기업의 조건>에서]

5. 고슴도치와 여우의 전략

▶ 고슴도치와 여우의 끈임없는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구?

- 기습과 무수한 전략으로 매번 공격하는 여우~
-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몸을 말아 동그란 작은 공으로 변신만 하는 고슴도치~



Vs



[생각하는 글]

이들의 싸움은 매번 고슴도치의 승리로 끝난다!!!

고슴도치는 **본질**적인 것을 보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한다.

좋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도약시킨 사람들은 어느정도는 고슴도치와 같았다.
그들은 자신의 고슴도치 속성을 활용하여 우리가 고슴도치 컨셉이라 부르게 된것을
그들의 회사에 밀어 붙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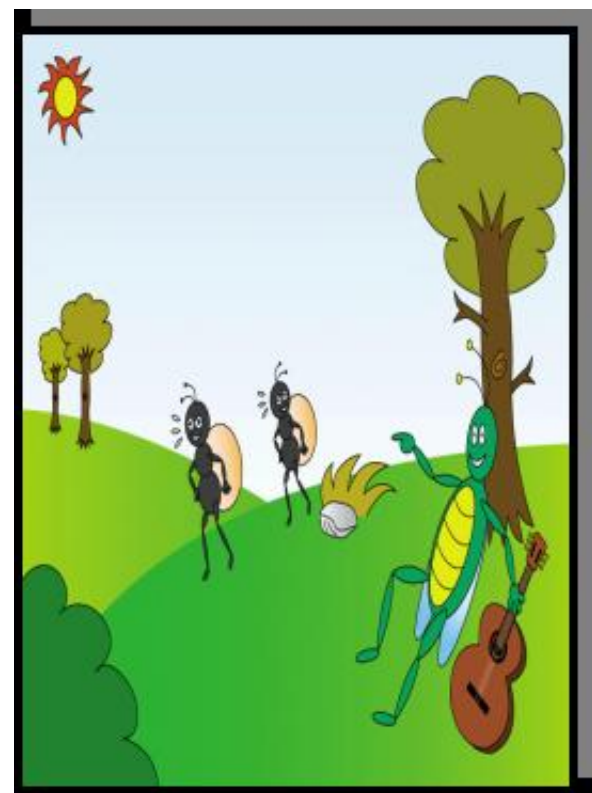
비교기업의 리더들은 여우 같은 속성이 있어
고슴도치 컨셉의 분명한 장점을 파악하지 못하고,
어지럽고 방만하고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.

[짐 콜린스의 <Good to Great>에서]

6. 개미와 베짦이의 노동관

【여름내내 노래만 부르던 베짦이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개미집을 찾아 갔다.】

- ▶ **일본편** : 그런데 아뿔사! 여름내내 오로지 일만 했던 개미들이 모두 과로사 하였더라~는 것이다.
- ▶ **소련편** : 개미는 우리 형제동무들이 왔다고 식량을 모두 거저 나누어 먹었다. 그런데 며칠 후 식량이 거덜나 개미도 베짦이도 모두 죽었다고 한다.
- ▶ **미국편** : 베짦이는 개미들을 위해 열심히 노래를 불러줬다. 그리고 개미들에게 요구한다.
“Ticket please!” 그래서 개미도 살고 베짦이도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았다.



[생각하는 글]

-일본편

(일만 할줄 알고 놀 줄 모르는 일본인을 빗댄 우화)

-소련편

(나눔,평등이라는 그럴듯한 미명하에 경쟁,생산성이 없는 공산주의를 빗댄 이야기)

-미국편

(창의성은 오히려 베짖이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이야기)

그렇다면... 우리는? 나는?

7. 새끼 거북의 역할분담과 협력



『 바다거북은 산란기가 되면
500개~1000개에 이르는
알을 낳는다.



한구덩이에 100개씩 10여차례에
걸쳐서 산란을 하는데 100여 마리의
새끼 거북들은 어떻게 모래 웅덩이를
빠져 나올까?



서로 뒤엉킨 상태에서
과연 그 좁은 구덩이를 빠져 나올
수는 있는 것일까?』

[생각하는 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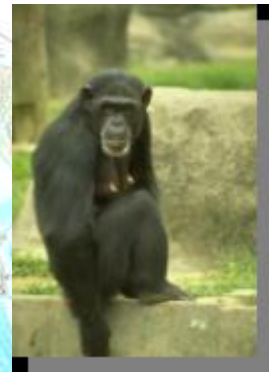
관찰결과 새끼 거북들은 **역할 분담과 협력을** 통해 빠져 나온다는 것이다.
구덩이에서 막 깨어난 새끼들 중 꼭대기에 있는 녀석은 천장을 파고,
가운데 있는 것들은 벽을 허물고, 밑에 있는 새끼들은 떨어지는 모래를 밟아 다지면서
다 함께 모래 밖으로 기어 나오더라는 것이다.

그래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.
알을 한 개씩 묻어 놓았을 때 27%, 두개씩 묻어 놓았을 때 84%,
네개 이상을 묻어 놓았을때 거의100% 가 알에서 깨 구덩이 밖을 탈출했다고 한다.

오늘날 세계의 흐름 역시 반목과 대립에서 벗어나 경쟁자에게 내 것을 주고
협력함으로써 더 큰것을 얻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.

[이건희 회장<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>中]

8. 변화를 선도하는 100마리째 원숭이



[1950년 일본의 미야자키현 고지마라는 무인도에서의 일어난 일]

그곳에는 원숭이가 20여마리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먹이는 주로 고구마였다. 어느 날 한살반짜리 젊은 원숭이 한마리가 강물에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다. 그러자 다른 원숭이들이 하나, 둘 흉내내기 시작하였고. . . ‘씻어 먹는 행위’는 그 섬 이외의 지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. 불가사의 하게도 이 현상은 점점 더. . .



[생각하는 글]

서로가 전혀 접촉이 없고,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신호를 보내기라도 한 것처럼 정보가 흘러간 것이다.

미국의 과학자 라이올 왓슨은 이것을 ‘백마리째 원숭이 현상’이라 이름 붙였고,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량에 달하면 그 행동은 그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간을 넘어 확산되어 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.

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상을 밝혀 나가는 하나의 지혜를 배울수 가 있다. 세상의 가치관이나 구조란 깨달은 10%의 사람에 의해 바뀐다고 한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달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먼저 10%가 깨달으면 사회와 세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다.

이것은 시공을 초월한 ‘공명현상(共鳴現象)’이 작용하지 때문이다.

[Kosoo.net <100마리째 원숭이> 중]

조삼모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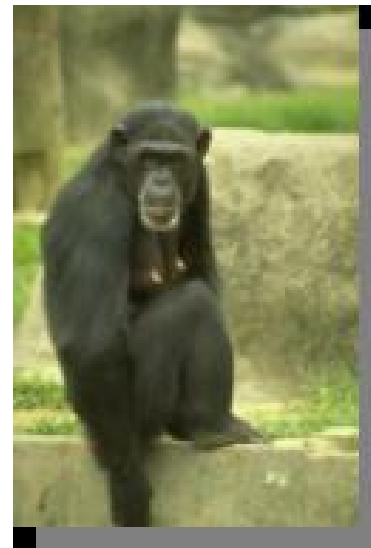
아침에 3개를달라!!

옛날 어느마을에 원숭이를 부려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있었다. 그런데 어느날 원숭이가 일을않자 원숭이에게 물었다. 왜 재주를 안부리니? 원숭이대답하기를 주인님 저는 일을

열심히하는데 주인 님은 저에게 사과를 너무 적게 줍니다.그러자 주인왈 그럼 사과 하나를 더 주마.아침에세개 저녁에 네개를주면 어떠냐?

원숭이 화를내며왜 아침에 세개를 줘요. 차라리 저녁에 세개를주고 아침에 네개를 줘요. 주인이 대답하길“그래 아침에 네개를 주마” 그러자 원숭이는 신이나서 재주를 부렸다고한다.

장자는 이를두고 조삼모사의 원리를 **알면 많은 사람을 다스릴수있고** 이원리를 **알지못하면 원숭이처럼 어리석은 존재가** 된다고 했다.



헤헤난 3개가 좋아



“Nothing endless but change”



***그럼에도 우리는 왜 어제처럼
살려고 하는가?***

**그 동안의 나태했던 모습에서
하루가 다르게 발전되는 사회와 무한경쟁시대에의
더 이상 변화하지 않으면
살아남을 수 없다는 시대흐름속에서
나 스스로를
바꿔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.**